20~30대 1인 가구의 여가통행 목적지 공간 선택과 선호에 관한 행태특성 연구*

장윤정** · 이창효***

A Study of Behavioural Characteristics of 20~30's Single Households on Destination Choices and Preferences for Leisure Travel*

Yoonjeung Jang** · Changhyo Yi***

요약 : 이 연구는 최근 급증하는 1인 가구의 여가통행에 대한 행태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여가통행 목적지에 대한 선택과 선호 패턴을 분석한 것이다. 연구대상으로 서울시 전체 1인 가구 중 높은 거주분포를 보이는 20~30대 1인 가구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인 가구의 여가통행 목적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1인 가구의 주거 점유형태와 거주지역의 여가매력성이 영향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1인 가구의 여가통행 목적지 공간선택패턴을 파악한 결과, 여가활동 목적에 따라 주변의 타 지역을 선택하는 복합적인 통행패턴을 보이고 여가통행 목적지 선택의 한계거리가 여가활동 목적별로 다양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1인 가구가 선호하는 여가활동 유형과 여가통행 목적지를 분석한 결과, 관람·행락·취미형을 선호하였으며, 여가통행 목적지로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역거점과 서울 주요 중심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 1인 가구는 여가통행 목적지로서 선호하는 지역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며, 1인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중 주거안정은 20~30대 1인 가구의 활동적인 여가활동을 영위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20~30대 1인 가구, 여가통행, 목적지 선택, 선호, 통행행태

ABSTRACT : This study analysed patterns of destination choice and preference for leisure travel to identify the behavioural characteristics of young single-person households in Seoul. The results revealed the following: First, leisure attractiveness in residential neighborhoods and the types of housing occupied by young single-person households affect the destination choice of these individuals for leisure travel. Second, based on the identified spatial patterns of destination choice for leisure travel, young single-person households have diverse mobility patterns, in line with the purpose of leisure activity, and the limitation on the range of leisure travel distance is depend on leisure type. Third, the most preferred type of leisure activity is cultural and hobby-oriented leisure activity, and young single-person households mostly prefer activities that are downtown or close to their residence. In conclusion, we found that young single-person households tend to choose their preferred location as their destination for leisure travel and that the housing stability of young single-person households is closely related to experiencing dynamic leisure activities to enhance quality of life.
Key Words : Young single-person households, Leisure travel, Destination choice, Preference, Travel behavior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NRF-2014S1A5A2A03066099)과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의 연구비지원(15CTAP-C078817-01)을 받아 수행된 연구 결과물입니다.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연구교수(Research professor, Department of Urban Planning and Design, The University of Seoul), 교신저자(E-mail: leisureurban@gmail.com, Tel: 02-6490-5518)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연구교수(Research professor, Department of Urban Planning and Design, The University of Seoul)

Ⅰ. 서론

급증하는 1인 가구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부문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2010년 서울의 1인 가구는 85만 4,606가구로 서울시 전체 가구의 23.9%로 그 가운데 20~30대가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통계청, 2011). 1인 가구의 소비패턴은 솔로 이코노미(solo economy)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 냈고, 여러 산업부문에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KB 이슈리포터, 2013). 이에 따라 산업부문을 비롯하여 학술적인 측면에서도 1인 가구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었는데, 주로 유통·주거·여가생활 등과 관련한 1인 가구의 행태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윤소영, 2002; 이성림·김기옥, 2009; 김옥연·문영기, 2009; 최승균 외, 2012; 박지남·천혜경, 2012; 김서연·류기상, 2014).

가족부양의 의무가 있는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1인 가구는 자기가치 제고를 위한 취미생활이나 여가 관련 소비에 있어서도 구매력이 강한 집단이며 여가와 관광을 즐기려는 성향 역시 강하다. 따라서 새로운 여가 소비주체로서 1인 가구의 여가활동 선호와 선택 행태는 비즈니스 전략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여가·관광시설을 공급하는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부문이다. 그러나 실제 여가목적지의 선택에 있어서는 선호하는 목적지와 선택되는 목적지는 행태적 측면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실제 선택행동이 개인의 성향뿐만 아니라 주어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Drolet et al., 2009).

여가관광 관련 시설의 선택과 선호 행태는 여가목적지의 매력성과 깊은 관련이 있지만, 여가관광관련 사업과 정책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가활동자의 행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여가활동 특성의 이해를 위해서는 공간적으로 선호하는 여가통행의 목적지와 실제로 선택하는 여가통행 목적지에 대한 행태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1인 가구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유창주·남광우, 2014; 최경은·윤주, 2013 외 다수), 여가·관광의 목적지에 대한 공간 선호와 선택의 측면에서의 행태적 특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여가활동의 주된 수요자인 20~30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여가통행 목적지에 대한 행태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여가통행 목적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여가통행 목적지에 대한 공간선택과 선호 패턴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20~30대 1인 가구와 여가통행 관련 특성을 파악하고, 여가통행 목적지 선택과 선호 관련 기존 선행연구들을 검토해 여가통행 목적지 선택과 여가통행 목적지 선호의 연구모형을 도출한다. 둘째, 20~30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여가통행 목적지 선택·선호와 관련된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셋째, 분석된 결과에 기초하여 20~30대 1인 가구의 여가통행 목적지에 대한 선택과 선호의 행태적 특성을 논의하고, 이를 기초로 관련 부문의 사업과 정책 전략에 있어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1인 가구와 여가통행

1인 가구는 1인으로 구성되어 취사, 취침 등의

생계를 독립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가구를 지칭한다(통계청, 2012). 201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1인 가구비율은 26.5%로 이미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에서 구성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인 가구의 증가율은 통계청에서 추계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해왔다. 이와 같은 1인 가구 비율의 증가 추세는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사항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1996년 1인 가구는 1.54억 명에서 2006년 2.26억 명으로 10년 만에 약 33%가 늘어났다. 특히, 유럽의 도시들은 나홀로 가구가 전체가구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유럽도시들의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1인 가구의 비율이 2001년 27.9%, 2011년 31.5%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Euromonitor International, 2012).

이미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1인 가구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Witte and Lahmann, 1988; Wall, 1989; Kramarow, 1995; Koesoebjono, 1984; Kaufman, 1994; Hall et al., 1997; Gilliland and Donthu, 2002; Jones et al., 2012; Wang and Abbott, 2013; Yoshida, 2011). 국내에서도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라이프 스타일, 소비패턴, 주거, 통행 특성 등 다양한 부문에서 1인 가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여가활동 측면에서, 우리나라 1인 가구가 여가활동을 홀로 즐기는 비중은 2010년 62.9%에서 2012년 79.2%로 급격히 증가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12). 또한, 1인 가구의 통행은 타 유형 가구의 통행보다 많게 나타났으며, 2인 가구의 통행 발생횟수보다는 1.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안효원 외, 2013). 특히, 노년층을 제외한 청년층과 중·장년층 1인 가구는 음식숙박비, 주거비, 교통비, 의류비, 오락문화비 등 다양한 문화활동과 외부활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성영애, 2013). 그러나 1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여가를 즐기려는 성향이 강하며 희망 여가활동으로 여행 또는 관광을 선호하지만, 실제 여행경험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백혜진 외, 2015).

1인 가구는 독신가구라는 점에서 연령대별로 다양한 소비패턴을 보인다. 연령대, 교육수준, 소득 등에 따라 소비지출패턴이 극과 극을 이루는데, 노인 1인 가구와 같이 소비지출에 있어 상당히 제한적인 패턴에서부터 고소득 자발적인 독신생활을 추구하며 지출비용이 많은 가구와 같이 다양한 패턴으로 분포해 있다(전상민, 2013). 이러한 특성은 1인 가구의 여가통행에 있어서도 자료의 이질성(heterogeneity)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연구대상에 대한 명확한 범주화 작업이 필요하다.

여가통행에 대한 정의는 전반적인 여가활동을 아우르는 광의적 개념의 여가통행과 일상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여가활동에 한정한 협의적 개념의 여가통행으로 구분된다. 광의적 개념의 여가통행은 여가, 레크레이션, 관광을 위한 모든 야외활동에 수반되는 통행으로 정의하고, 협의적 개념의 여가통행은 일상적인 환경에서 휴식, 레크레이션, 엔터테인먼트, 취미활동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통행을 의미한다(Statistics Finland, 2011).

여가활동에 의해 발생되는 여가통행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가에 대한 시간적 개념의 접근뿐만 아니라 활동목적 측면의 접근 역시 필요하다. 여가활동 목적에 따라 통행이 유발되는 여가통행은 주로 주말이나 휴일에 발생되며 통행목적은 주로 관광, 쇼핑, 친교, 오락, 휴식 등의 포괄적인 이동목적을 담고 있는 비일상 통행이다(장윤정·이승일, 2010; 서동환 외, 2011; 장윤정, 2014). 여가·관광 통행의 유형은 통행거리와 세부 활동목적에 따라 유형이 구분될 수 있다. 먼저, 통행거리 측면

에서 크게 거주지 인근, 나들이 통행, 그리고 장거리 통행으로 구분된다. 거주지 인근의 단거리 여가통행은 거주지 주변이나 시내로의 통행을 의미하며, 나들이 통행은 주로 짧게 머무르는 숙박여행이나 당일여행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장거리 통행은 주로 국내여행을 의미하며, 가용소득이나 목적지의 매력성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Ceron and Dubois, 2005). 통행거리측면에서 구분된 여가·관광통행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각각의 패턴이 구분되고, 가구의 특성에 따라서도 통행특성이 달라진다(장윤정, 2014).

여가활동의 목적 측면에서, Ohnmacht et al.(2009)는 협의적인 여가통행에 대해 이동유형을 SPO(sporty types), FUN(fun and distraction), CUL(culture-oriented), HOME(neighbourly home-lovers)의 4가지로 분류했으며, 장윤정(2013)은 광의적인 의미의 여가통행에 대해 자연·관광·휴양형, 관람·행락·스포츠형, 사교형, 쇼핑·복합형으로 구분하였다. 자연·관광·휴양형 여가통행은 산이나 바다, 수변 등 자연을 접하기 위하여 도시근교나 지방으로의 여행을 의미하는 것이며, 관람·행락·스포츠형 여가통행은 공연(영화), 전시·스포츠관람, 도시공원방문, 골프·스포츠·조기축구 등 각종 취미활동을 위한 통행을 의미하고, 사교형은 친지방문, 종교 활동, 돌잔치, 예식, 유흥친교 등 각종 모임을 위한 통행을 의미하며, 쇼핑·복합형은 쇼핑, 외식, 사우나 등과 같은 단일목적 활동과 이들 활동이 복합적으로 조합되거나 특정한 목적 없이 여가시간을 보내기 위해 수행된 통행을 의미한다. 활동유형 측면에서 여가통행 거리의 특성을 살펴보면 쇼핑이나 취미활동 등과 같은 통행은 주로 거주지 주변이나 도시 내 단거리 통행이지만, 사회적 관계에 기인하는 사교형 여가통행과 자연·관광·휴양은 많은 비율이 장거리 통행의 경향을 보인다(Schlich et al., 2004; 장윤정, 2013; 2014).

2. 여가통행 목적지의 선택과 선호

목적지 선택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주로 휴가통행에 초점을 두거나(Louviere and Timmermans, 1990; Simma et al., 2002; LaMondia et al., 2010), 장거리통행이나 도시 간 통행에 관한 것이다(Morey et al. ,1991; Yai et al., 1995; Train, 1998; Pozsgay and Bhat, 2001 재인용). LaMondia et al.(2010)는 여러 유럽국가 간에 대한 휴가통행에 대해 분석을 하였고, Simma et al.(2002)는 스위스의 여러 도시 간의 여가통행에 대한 분석을 하였으며, 대도시지역내에서 단거리 여가통행행태에 초점을 둔 여러 연구가 있다(Nostrand, 2011; Yamamoto and Kitamura, 1999; Bhat and Gossen, 2004; Schlich et al., 2004; Lanzendorf, 2002). 그러나 대부분의 모형이 집계형 모형으로 몇몇 유럽국가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모형에 대해 비집계 다항로짓모형이나 네스티드로짓모형(nested logit)을 이용하여 목적지 선택에 관한 분석을 하였다(Hackney, 2004). 장거리 여가통행 목적지 선택연구로 Nostrand(2011)는 일년 간의 여가통행 목적지 선택과 시간배분에 대해 다중이산연속극한모형(multiple discrete-continuous extreme value)을 이용하여 예측모형을 추정하였다.

목적지 선택연구에 있어 도시여가통행에 대한 선행연구는 오히려 미흡한 실정인데, 목적지선택모형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통근통행이나 쇼핑통행에서 이루어져왔다(Koppelman and Hauser, 1978; Miller and O'Kelly, 1983; Timmermans, 1996; Bhat et al., 1998; Pozsgay and Bhat, 2001

재인용). 도시여가통행에 대한 연구로서 Pozsgay and Bhat(2001)는 토지이용요소, 교통계획요소,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설명변수로 하여 다항로짓 모형을 이용하여 여가통행 목적지 선택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주거지로부터의 교통 서비스 수준은 여가통행의 목적지 결정에 있어 중요한 변수이며, 여가관련 시설이 있는 존의 규모는 여가활동에 있어 존 선택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또한 여가통행의 목적지는 집적효과가 있어 규모가 작지만 다양한 시설들이 모인 지역이 단독으로 떨어진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선택되며, 특히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여가목적지 선택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고령자, 아이가 있는 가구, 독신가구는 거주지와 가까운 여가입지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Pozsgay and Bhat, 2001). 이와 같이 여가통행 목적지와 관련하여 수행된 일련의 연구들은 장거리 여가통행인가 단거리 여가통행인가에 대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토지이용특성을 설명변수로 한 로짓 모형을 적용하였다. 하지만, 주로 이용된 토지이용변수들은 도시형태적 요소(거주밀도, 토지이용 다양성, 고용밀도 등)를 다루고 있어, 여가활동 자체에 대한 토지이용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가통행 목적지 선택모형은 여가활동이라는 활동적 특성을 고려한 토지이용특성 변수가 적용되어야 한다.

선호란, 인지적 측면에서 특정 대상에 대해 다른 것보다 상대적으로 더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관광객이 어느 관광 목적지에 대해서 호의적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은 관광 목적지에 대한 긍정적인 선호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광목적지를 방문하고자 하는 행동욕구를 가지게 된다(김용이, 2009).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선호를 반영하여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선호는 사람들이 잠재적인 대안으로부터 선택을 의미한다. 즉, 선택의 결정이 기본적인 의미에서 목표 지향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선택은 다양한 고려사항을 근거로 이루어지는데 개인의 성향뿐만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Drolet et al., 2009).

여가나 관광활동과 같은 여가통행은 선호하는 목적지와 실제 선택되는 목적지 간의 격차가 크다. 여가통행 목적지 선호란 주로 여가통행자의 성향을 나타내는 것이고, 여가통행 목적지 선택이란 여가통행자가 최종적인 결정으로 나타나는 활동의 결과이다.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은 선택과 선호행동에 대해 여러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주로 한가지 관점에서 목적지 선택속성인지 혹은 선호속성을을 파악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 연구는 여가통행에 대한 선택과 선호행동을 동시에 고려하여, 여가통행을 수행하는 활동자의 실제 의사결정 결과로 나타나는 선택과 선호에 대한 패턴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20~30대 1인 가구의 여가통행에 대한 행태특성은 공공과 민간 부문의 정책수립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론

1. 분석자료와 표본의 특성

이 연구는 연구대상지 선정을 위해 서울시 424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도시 공간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 도시 형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첫째, 도시 공간적 특성을 고려한 이유는 서울시 25개구의 모든 동을 연구대상지로 선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크리스탈러(Christaller)의 중심지이론을 근거로 서울의 도심으로부터 직선거리로 도심접근성을 측정하여 중심지의 계층으로부터 3개 지역의 배후지역을 선정하였다. 둘째, 추출된 3개 배후지역에 대해 인구사회학적 특성(주민등록상 인구비율, 가구당 자동차 대수)을 기준으로 Ward법을 이용한 계층적 군집분석을 수행하여 총 17개 동을 추출하였다. 셋째, 추출된 17개동 가운데, 도시 형태적 특성 가운데 소형 원룸, 다세대 주택, 고층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은 주택유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종 3개 배후지역을 선정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지로서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인 가구의 분포비율을 파악한 결과, 4분위(양재2동), 3분위(월계1동), 2분위(여의도동)(통계청, 2010)[3]로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고 고루 분포하는 곳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가통행 목적지 선택과 선호에 대한 정보를 구득하기 위한 이 연구의 설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가통행 목적지 선택과 관련하여 여가통행 경험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여가통행 경험조사는 주말여가통행에 대하여 여가유형별 여가통행 경험 횟수, 여가유형별 여가통행 출발지-목적지, 여가유형별 여가통행거리로 구성하였다. 둘째, 여가통행 목적지 선호와 관련하여 각 항목에 대한 선호도와 함께 여가통행 가상선호조사를 수행하였다. 시간과 지불능력에 대한 가상 상황을 설정[4]하고,

〈표 1〉 여가통행조사 설문 내용

구분	조사내용	
경험조사	① 여가유형별[1] 여가통행 경험횟수, ② 여가유형별 여가통행 출발지-목적지, ③ 여가유형별 여가통행거리	
가상선호조사	선호도	① 4개의 여가유형 선호도(5점 척도), ② 4개의 여가통행 목적지[2] 선호도(5점 척도)
	16개 대안	① 자연·휴양형-외곽지역, ② 관람·행락·취미형-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역거점, ③ 자연·휴양형-서울의 주요 중심지, ④ 쇼핑·복합형-외곽지역, ⑤ 관람·행락·취미형-거주지 주변, ⑥ 쇼핑·복합형-거주지 주변, ⑦ 관람·행락·취미형-서울의 주요 중심지 ⑧ 사교형-서울의 주요 중심지, ⑨ 자연·휴양형-거주지 주변, ⑩ 사교형-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역거점, ⑪ 사교형-외곽지역, ⑫ 사교형-거주지 주변, ⑬ 쇼핑·복합형-서울의 주요 중심지, ⑭ 자연·휴양형-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역거점, ⑮ 쇼핑·복합형-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역거점, ⑯ 관람·행락·취미형-외곽지역
거주환경 및 개인·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거주환경	① 교통여건 만족도, ② 상업·서비스 시설 만족도, ③ 스포츠·문화 관련 시설 만족도, ④ 자연 및 녹지공원시설 만족도, ⑤ 거주면적, ⑥ 거주 주택종류
	인구·사회학적 특성	① 성별, ② 연령, ③ 개인의 소득, ④ 학력, ⑤ 직장위치, ⑥ 주중 출퇴근 시 이용교통 수단, ⑦ 가구유형, ⑧ 가구소득, ⑨ 운전면허소지 여부, ⑩ 자동차 보유현황: 차종, 보유대수, ⑪ 주택점유형태

1) ① 쇼핑·복합형: 쇼핑, 외식, 사우나 등과 같은 여러 활동이 복합적으로 조합되거나 특정한 목적 없이 수행된 여가활동, ② 관람·행락·취미활동: 공연(영화)·전시·스포츠관람, 골프·스키·축구 등 각종 취미 및 놀이 활동, ③ 자연·휴양형: 각종 자연을 접하기 위한 등산 및 캠핑 등을 위한 활동, ④ 사교형: 친지방문, 유흥·친교 등 각종 사교모임을 위한 활동

2) ① 서울의 주요 중심지: 서울의 도심(4대문 안의 종로, 중구), 강남지역(압구정역, 역삼역 일대), ②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역거점: 거주지에서 가까운 각종 상업 및 여가시설 등이 모여 있는 곳(예: 여의도-영등포역 일대 등, 양재동-양재역 일대 등), ③ 거주지 주변(도보 10분 내외): 여가활동자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반경 650m 정도, ④ 외곽지역: 서울 이외의 모든 지역

3) 거주밀도 - 5분위: 36.3 초과, 4분위:27.2~36.2, 3분위: 18.1~27.1, 2분위: 9.0~18.0, 1분위: 8.9 이하

4) 시간적 여유는 지금과 같으나 지불능력이 지금보다 증가했을 경우

〈표 2〉 자료의 특성

구분			양재2동		월계1동		여의도동	
			사례수	분포	사례수	분포	사례수	분포
인구사회학적특성	소득	100만 원 미만	11	22.2	8	18.2	7	23.5
		100~200만 원 미만	13	24.6	14	30.3	13	41.2
		200~300만 원 미만	23	44.3	20	45.4	10	31.4
		300~500만 원 미만	3	6.7	3	6.1	1	3.9
		500~1000만 원 미만	1	2.2	0	0	0	0
	학력	중학교 졸업	0	0	0	0	0	0
		고등학교 졸업	11	8.9	27	21.2	25	19.6
		대학교 졸업	113	88.9	100	78.8	102	80.4
		대학원 이상	3	2.2	0	0	0	0
	성별	남	14	26.7	9	20	9	29.4
		여	37	73.3	36	80	22	70.6
	주택 점유형태	자가	42	82.4	33	73.3	2	6.5
		자가 아님	9	17.6	12	26.7	29	93.5
	운전면허	있음	51	100	45	100	31	100
		없음	0	0	0	0	0	0
	거주면적	15평 미만	2	3.9	2	4.4	1	3.2
		15평~18평 미만	19	37.3	22	48.9	4	12.9
		18평~24평 미만	25	49.0	13	28.9	22	71.0
		24평~32평 미만	2	3.9	7	15.6	4	12.9
		32평~42평 미만	3	5.9	1	2.2	0	0
		42평 이상	0	0	0	0	0	0
	주택종류	아파트·오피스텔	0	0	10	22.2	29	93.5
		연립주택(빌라, 도시형생활주택)	51	100	21	46.7	0	0
		다가구	0	0	14	31.1	0	0
		단독	0	0	0	0	0	0
		기타	0	0	0	0	2	6.5
	자동차보유대수(평균)		1.5		1.4		1.2	
거주환경	교통여건 만족도(평균)		3.92		3.43		3.77	
	상업서비스 시설 만족도(평균)		4.04		3.20		3.91	
	스포츠·문화관련 시설 만족도(평균)		3.71		2.70		3.86	
	자연·녹지 시설 만족도(평균)		3.80		2.73		3.93	
경험조사	경험횟수(평균)/월		1.55		1.24		1.35	
	목적지	거주지주변	57	27.7	26	21.3	27	42.9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역거점	37	18.0	45	36.9	19	30.2
		서울의 주요중심지	76	36.9	26	21.3	11	17.5
		서울 외 지역	36	17.5	25	20.5	6	9.5
		계	206	100	122	100	63	100
	주말여가통행거리(평균)/월		20.39		5.12		27.07	
가상선호조사	여가유형 선호도	쇼핑·복합형 선호도(평균)	4.03		3.91		3.86	
		관람·행락·취미형 선호도(평균)	3.96		4.38		3.76	
		자연·휴양형 선호도(평균)	3.53		3.82		2.96	
		사교형 선호도(평균)	3.92		3.31		2.93	
	여가통행 목적지 선호도	거주지주변 선호도(평균)	3.57		3.97		3.61	
		지역거점 선호도(평균)	3.90		4.22		3.90	
		서울의 주요중심지 선호도(평균)	3.94		3.97		3.74	
		서울 외 지역 선호도(평균)	3.73		3.37		2.48	
기타		통근거리(평균)/월	9.90		10.30		27.07	
		거주분포	51	40.2	45	35.4	31	24.4

단위: 사례수(명), 분포(%), 거리(km), 평균(점), 자동차수(대), 횟수(회)
비고: 이 자료의 자가 점유율은 61%로 2012년 1인 가구 자가 점유율인 32.8%(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14년)비해 높은 편이나, 양재2동과 월계1동은 역세권의 장점을 가진 도시형생활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전세가와 매매가가 큰 차이가 나지 않음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지역의 자가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이 시기부터 전세물건이 부족해지면서 '전세'가 '매매'로 전환했을 가능성과 가구방문조사가 이루어지는 시간대상(낮 시간)의 한계로 주로 자가 점유에 대한 응답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가유형과 여가통행 목적지에 대하여 2개 선택속성과 4개의 속성수준을 조합한 4^2개의 대안을 구성하여 가상적인 프로파일을 만들어 응답자에게 제시하는 전체 프로파일 제시법(full-profile method)을 사용하였다. 프로파일 추출은 SPSS 19.0의 직교설계(orthogonal design)을 이용하였으며, 16개의 대안은 〈표 1〉의 가상선호조사 내용과 같다. 셋째, 그 외 응답자의 거주환경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거주환경과 관련 6개 항목과 인구·사회학적 특성관련 11개 항목에 대하여 조사하였다(〈표 1〉 참조).

방문 이전에는 해당 가구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전수조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구대상지의 인구수를 모집단으로 하여 코크란(Cochran)의 수식[5]을 이용하여 각 연구대상지에 대한 표본의 크기를 설정하였다. 각 연구대상지별 표본의 크기는 여의도동 270명, 월계1동 269명, 양재2동 269명으로 추정되어 각 300명씩 총 900명을 표본의 크기로 정하였다. 대상지역에 대한 예비조사 2회를 거쳐 설문내용과 용어선택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수정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조사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2012년 4월 15일부터 5월 12일까지 한 달 간 연구대상지를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을 하는 가구방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수집된 총 853개의 표본 가운데, 총 127개의 20~30대 1인 가구의 자료를 구득하였다.

총 127개의 표본 가운데 거주분포는 양재2동이 40.2%, 월계1동이 35.4%, 여의도동이 24.4%였으며, 성별은 전체 여성비율이 74.8%, 전체 남성비율이 25.2%로 여성 1인 가구의 응답률이 높았다. 이는 서울시 거주 1인 가구 중 여성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 중 12.6%를 차지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통계청, 2010), 여성 1인 가구의 높은 응답률은 타당한 비율이다. 유효 표본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거주환경, 경험조사, 가상선호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특성은 〈표 2〉와 같다.

2. 분석방법론

1) 여가통행 목적지 선택모형

여가통행 목적지 선택모형은 각 연구대상지에 거주하는 활동자 i가 선택한 여가통행 목적지가 거주하는 해당동인지, 그 외 지역인지에 대한 것이다. 여가통행 목적지 선택의 방법론 설정과 관련하여 종속변수는 이항형 변수(해당동: 1, 그 외: 0)로 구성하고, 설명변수는 여가환경(활동자 i의 여가복합도, 활동자 i의 여가접근도, 활동자 i의 여가매력성), 사회·경제적 특성(인당 거주면적, 점유형태, 개인소득, 가구당 자동차 보유대수), 통행태도(자동차선호, 목적지선호도)를 설명변수로 설정하였다.

여가통행 목적지 선택측면에서의 방법론 설정과 관련된 변수는 〈표 3〉과 같다. 여가환경은 응답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여가환경에 대한 물리적·공간적 특성으로 쇼핑·복합형, 관람·행락·취미형, 사교형, 자연·관광휴양형 여가활동과 관련된 공간자료로부터 추출하였다. 이를 위해 이용된 자료는 2009년 서울시 과세대장자료 건축물분, 2010년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네이버 지도 공간자료이다. 여가복합도는 여가활동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여

5) $n_0 = \frac{Z^2pq}{e^2}$, n_0 : 표본의 수, Z^2: 표준 정규분포곡선 상의 신뢰도 계수 α를 나타내는 계수
e : 희망하는 정확도 수준, p: 모집단 추정 속성비율, $q=1-p$

가환경에 대한 다양성을 수치화한 것으로 생물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엔트로피 기법인 Shannon의 다양성지수를 응용하여 각 활동자 i의 여가복합도를 산정하였다. 여가접근도는 여가활동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여가통행을 위한 기회의 크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한센(Hansen)의 접근도 개념을 응용하여 도출하였다. 한센의 접근도의 일반적 개념은 어느 지점에 위치한 개인(집단)이 특정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정도를 의미한다(Jone, 1981). 여가매력성은 여가활동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여가환경 유인력을 수치화한 것으로, 여가환경 만족도를 가중치로 하고 여가공간밀도(장윤정·이승일, 2010)와 여가접근도를 함께 고려하여 수치화한 값으로 중력모형의 수식을 응용하여 도출하였다(〈표 3〉 참조, 〈부록〉 참조).

여가통행 목적지 선택모형의 분석방법론은 각 연구대상지에 거주하는 활동자 i가 선택한 여가통행 목적지가 거주하는 해당동인지, 그 외지역인지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선택된 여가통행 목적지에 대해 로짓모형(logit model)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여가환경, 사회·경제학적 특성, 통행태도 변수들이 여가통행 목적지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의 〈식 1〉과 같이 모형을 설정하였다.

$$P_i(choice\ j) = \frac{\exp(\beta_j x_{ij})}{\sum_{k=1}^{m} \exp(\beta_k x_{ik})} \quad \langle 식\ 1 \rangle$$

단, x_{ij}: 여가환경, 사회·경제, 행태특성

〈표 3〉 여가통행 목적지 선택 측면의 방법론 설정을 위한 변수의 정의

구분			내용		
여가통행 목적지 선택	종속변수	여가통행 목적지	연구대상지의 해당동 (1), 그 외(0)		
	독립변수	여가환경	① 활동자 i의 여가복합도	$M^i = -\sum_j^z L_j^i \ln L_j^i$ z: 여가공간의 종류 L_j^j: 활동자 i의 여가공간 j에 대한 점유 비율(n_j^i/N_k^i) n_j^i: 활동자 i의 여가공간 j면적 N_k^i: 활동자 i의 총 여가공간면적 (활동자 i의 거주지 반경 650m)	
			② 활동자 i의 여가접근도	$A^i = \ln[\sum_j B_r^k f(c_{ij})]$ B_r^k: k동에서 r유형의 여가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활동기회 수 $f(c_{ij})$: 여가시설 i에서 j까지의 통행저항함수	
			③ 활동자 i의 여가매력성	$T^i = \sum \alpha_i f(A^i \cdot D_r^k)$ α_i: 활동자 i의 가중치 (거주지 여가환경 만족도) A^i: 활동자 i의 여가접근도(②) D_r^k: k동의 인당 여가공간밀도	$D_r^k = w_k \frac{\sum_{j=1,\ j\in r}^{m} L_j}{P^k}$ D_r^k: k동의 r카테고리 여가공간밀도 L: 건축물 연상면적(단위: m^2) j: 개별 건축물 P^k: k동의 인구 w_k: k동의 가중치($L_r^k/\sum_{i=1}^{n} L_i$)
		사회·경제적 특성	① 인당거주 면적, ② 점유형태(dummy), ③ 개인소득, ④ 자동차보유대수		
		행태특성	① 자동차선호(dummy), ② 도심선호(5점 척도), ③ 거주지선호(5점 척도), ④ 지역거점 선호(5점 척도), ⑤ 외곽선호에 대한 선호점수(5점 척도)		

여가통행 목적지 선택에 대한 탄력성은 로짓 모형에서의 각 대안 i의 독립변수(X_{ik})에 의한 대안 i의 선택확률로 정의된다. 여기서는 대안 i의 독립변수(X_{ik})에 대한 대안 i의 직접탄력성(direct elasticity)으로, 여가통행 목적지 선택에 있어 해당동의 선택에 대한 탄력성 값을 제시한 것이며, 일반적으로 다음 〈식 2〉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eta_{X_{ik}}^{P_i} = \beta_k P_i (1-P_i)[\frac{X_{ik}}{P_i}] = \beta_k X_{ik}(1-P_i) \quad \text{〈식 2〉}$$

2) 여가통행 목적지 선호모형

여가통행 목적지 선호모형에서의 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이 연구에서는 여가통행 목적지에 대한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해 소비자 선호도 파악을 위해 널리 사용되는 순위형 컨조인트 분석(rating- based conjoint)을 이용하여 파악하였다.

여가통행 목적지 선호에 대한 가상선호조사(stated preference)를 위해서는 여가통행에 있어 중요시 되는 속성요인을 정해야 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여가통행 목적지와 여가유형을 속성요인으로 정하였다. 이때, 여가통행 목적지 선호에 대한 선택대안은 여가유형과 여가목적지 입지에 대한 조합($k \times d$)으로 구성된 16개이며, 각 속성은 여가유형과 여가통행 목적지이므로, 다음의 〈식 3〉과 같이 로짓모형을 분석의 모형으로 설정하였다.

$$U_{im} = V_{im}(Z_{im}, S_i) + \epsilon_{im} \quad \text{〈식 3〉}$$

단, i: 응답자, m: 대안($k \times d$)

k: 여가유형, d: 여가통행 목적지

V_{im}: 현재의 선택대안과 가상 선택대안들의 속성들(Z_{im})과 각 응답자들의 특성치(S_i) 함수

ϵ_{im}: 확률오차

가상선호조사의 자료수집방법은 전체 프로파일 제시법을 사용하였다. 프로파일의 추출은 아래〈그림 1〉과 같이 여가유형과 여가통행 목적지를 속성요인으로 한 16개의 대안을 추출하였다.

여가유형		여가통행목적지
1. 쇼핑·복합형		1. 서울의 주요 중심지
2. 관람·행락·취미활동형	x	2. 거주지 주변
3. 자연·관광휴양형		3. 지역거점
4. 사교형		4. 외곽지역

〈그림 1〉 전체 프로파일 제시법을 이용한 대안

총 16개의 대안카드를 제시하고 선호도를 순위로 표기하게 하여야 하나, 16개의 대안카드에 대해 선호도를 표기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4개의 그룹으로 묶어 자기 평가식 접근방법(self-explicated approach)을 응용하여 다음과정을 거쳐 16개의 순위를 표기하였다. 첫째, 여가유형과 여가통행 목적지에 대한 속성의 중요도를 측정하고, 둘째, 순위로 평가된 자료를 점수로 변환하고 각 속성별 중요도를 가중치로 하여 평가점수를 전환하였다. 셋째, 평가점수로 전환하더라도 중복값이 나오는 자료가 있어, 응답자가 여가유형과 여가통행 목적지 중 어떤 것을 선호하는 지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가중치로 하여 같은 순위의 동점값에 대해 제 순위를 부가하였다.

선호에 대한 방법론인 컨조인트 분석의 모형은 크게 벡터모형, 이상점모형, 부분가치함수모형, 혼합모형으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속성자료가 질

적(qualitative)인 경우에는 부분가치 함수모형이 적절하며, 속성이 양적인 경우에는 벡터나 이상점 모형이 적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연구에서는 순위형 컨조인트 분석을 이용하여, 여가통행 목적지 선호에 대한 여가유형과 여가통행 목적지에 대한 부분가치를 추정하였다.

Ⅳ. 실증분석

1. 여가통행 목적지 선택 영향요인과 공간선택

이 연구에서는 여가통행 목적지 선택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이항로짓모형(binomial logit model)을 적용하여 Limdep 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여가목적지의 공간선택 패턴을 파악하기 위하여 공간분석 툴인 ArcGIS 10을 이용하였다.

첫째, 20~30대 1인 가구의 여가통행 목적지 선택에 있어 거주하는 해당동의 선택에 대한 영향요인은 점유형태가 자가인 경우보다 자가가 아닌 경우가, 여가통행 목적지 선택에 있어 거주하는 해당동을 여가통행 목적지로 선택할 경향이 높아짐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다. 또한 20~30대 1인 가구가 거주하는 해당동의 여가매력성이 클수록 해당 거주 지역을 여가통행 목적지로 선택할 경향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탄력성 분석 결과, 점유형태가 자가인 경우가 1% 증가함에 따라 여가통행 목적지 선택에 있어 거주하는 해당동을 선택할 확률은 0.449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30대 1인 가구의 경우, 활동자 i가 거주하는 해당동을 여가통행 목적지로 선택함에 있어, 1인 가구의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인 경우보다 자가가 아닌 경우가 활동자 i가 거주하는 해당동을 여가통행 목적지로 선택할 확률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여가매력성이 1% 증가함에 따라 거주

〈표 4〉 여가통행 목적지 선택 영향요인

구분		목적지 선택(거주지 근처 - 그 외)			
		coef.	t-ratio	탄력성	모형의 적합도
Constant		-5.029	-2.289		
여가환경	여가복합도	-0.071	-0.071		
	여가접근도	-0.024	-0.678		
	여가매력성	0.414*	1.745	2.475	
사회경제	등가소득	0.000	0.624		Likelihood ratio index = 0.095
	자동차보유대수	-0.176	-0.563		
	인당 거주면적	0.002	0.266		Log likelihood at zero = -192.909
	점유형태	-0.782**	-2.173	-0.449	
통행행태	자동차선호	0.032	0.090		Log likelihood at convergence = -186.248
	중심지 선호	0.191	0.700		
	거주지주변 선호	-0.089	-0.388		
	지역거점 선호	0.092	0.419		
	외곽 선호	0.123	0.585		

하는 해당동을 여가목적지로 선택할 확률은 2.745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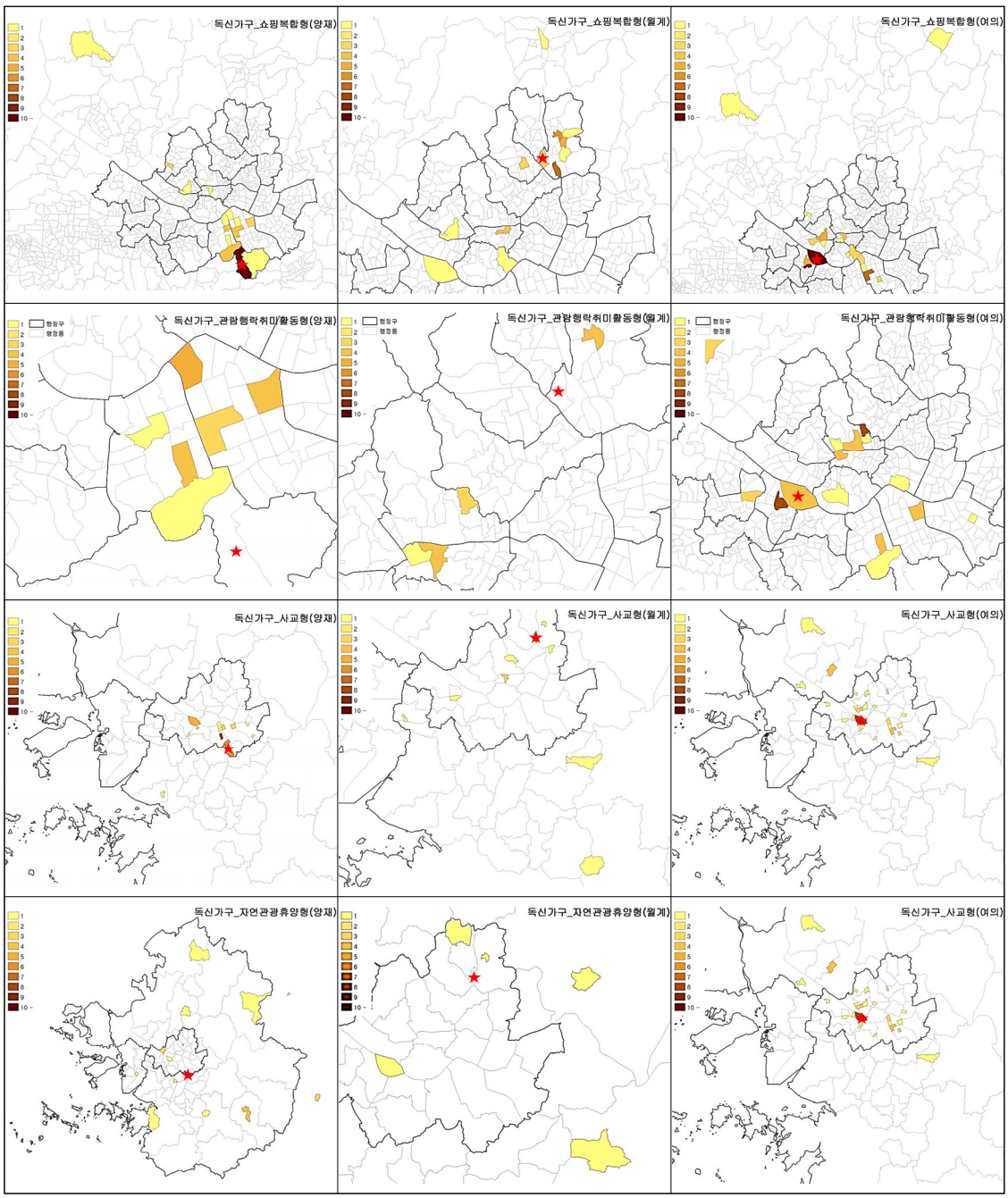
이는 활동자 i가 거주하는 해당동의 여가매력성이 높을 때 활동자 i는 해당지역을 여가통행 목적지로 선택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통해, 첫째, 20~30대 1인 가구의 여가통행 목적지 선택에 있어 사회·경제적 특성 가운데 주거 점유형태와 해당거주 지역의 여가환경 특성가운데 여가매력성이 영향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가구와 비교했을 때, 해당지역의 여가매력성은 여가통행 목적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통요인이었다(장윤정, 2013). 하지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동차 선호여부가 여가통행 목적지 선택의 영향요인이었지만, 20~30대 1인 가구의 경우는 주거의 점유형태로 나타났다. 이는 주거비용을 제외한 가처분소득이 증가했을 때 여가활동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민웅기, 2002). 둘째, 20~30대 1인 가구의 여가통행 목적지 공간선택 패턴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림 2〉 참조). 20~30대 1인 가구의 쇼핑·복합형 여가통행 목적지는 거주지 주변, 지역거점, 서울시내 주요 중심지, 서울 외곽 등 다양한 분포패턴을 보였으나, 여의도와 양재2동의 조사 응답자들은 거주지 주변을 중심으로 목적지 선택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관람·행락·취미활동형 여가통행 목적지의 경우 거주지 주변보다는 지역거점 및 서울시내 주요 중심지를 선택하는 분포패턴을 보였다. 20~30대 1인 가구의 사교형 여가통행 목적지는 거주지 주변과 서울시내 주요 중심지, 서울 외곽 등 다양한 분포패턴을 보였으며, 빈도수는 많지 않지만 장거리 목적지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자연·관광휴양형 여가통행 목적지는 서울 외곽 지역을 주로 목적지로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목적지 선택 빈도수는 전체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20~30대 1인 가구의 여가통행 목적지 선택에 대한 전체적인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가활동 목적에 따라 거주지 주변 이외의 타 지역을 다양하게 선택하는 복합적인 통행패턴을 보이며, 여가통행 목적지 선택에 있어 한계이동 거리는 쇼핑·복합형, 관람·행락·취미형은 단·중거리 패턴을 보이지만 통행 빈도가 높고, 사교형과 자연·관광휴양형은 중·장거리 패턴이지만 통행빈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1인 가구의 여가통행 목적지 선택의 한계거리가 여가활동 목적별로 다양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2. 여가통행 목적지 선호 영향요인

이 연구에서는 선호하는 여가유형과 선호하는 여가통행 목적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간과 지불능력에 대한 가상 상황을 전제로 하여 여가유형과 여가통행 목적지에 대한 효용을 파악하였다.

여가유형에 대한 효용은 선호하는 여가활동 유형을 예측할 수 있으며, 여가통행 목적지에 대한 효용은 선호하는 여가통행 목적지를 예측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여가유형과 여가통행 목적지를 속성으로 하여 전체 프로파일 제시법을 적용하여 대안을 구성하였다.

여가유형과 여가통행 목적지 입지에 대한 효용과 상대적 중요도는 〈표 5〉와 같다. 여가유형에 대한 상대 중요도는 45.979, 여가통행 목적지의 입지에 대한 상대 중요도는 54.021로, 여가통행에 있어 여가유형보다 여가통행 목적지를 우선적으로 선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여가유형과 여가통행 목적지 선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통해서 여가통



〈양재2동〉 〈월계1동〉 〈여의도동〉

〈그림 2〉 여가유형별 여가통행 목적지 공간분포(★는 해당동)

주: 여가유형 - ① 쇼핑·복합형, ② 관람·행락·취미형, ③ 사교형, ④ 자연·관광휴양형

행에 있어 여가유형과 여가통행 목적지 두 요소 간의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는데, 1인 가구는 여가통행에 있어 여가유형보다는 여가통행 목적지를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의 유형 및 여가통행 목적지의 부분효용을 통해서는 선호하는 여가유형과 선호하는 여가통행 목적지를 예측할 수 있는데, 선호하는 여가유형과 여가통행 목적지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가유형별 부분 효용값은 쇼핑·복합형(-1.793), 관람·행락·취미활동형(.874), 자연·휴양형(.772), 사교형(.148)으로 관람·행락·취미활동형 여가유형에 대한 부분효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30대 1인 가구는 관람·행락·취미활동형 여가활동을 가장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여가통행 목적지에 대한 부분 효용값은 거주지 주변(-1.502),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역거점(1.256), 주요 중심지(1.051), 외곽(-.805)의 순으로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역거점에 대한 부분효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20~30대 1인 가구가 가장 선호하는 여가통행 목적지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역거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20~30대 1인 가구의 여가통행 관련 선호 특성을 파악한 결과, 공간적으로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역거점을 선호하며, 행태적으로는 관람·행락·취미활동형 여가활동을 선호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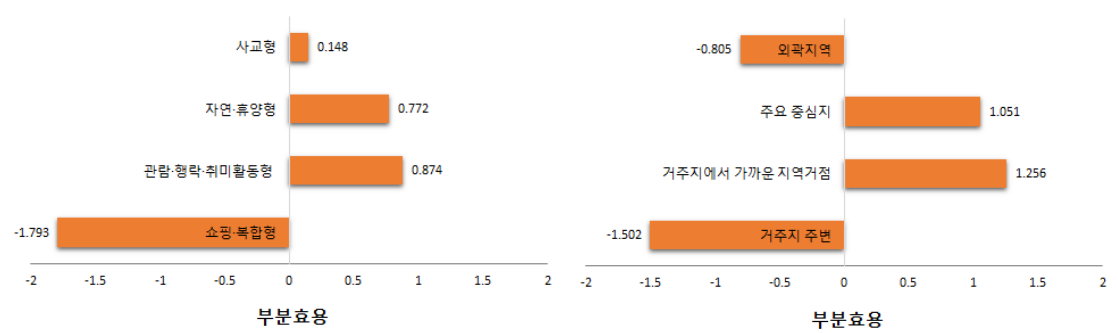
Ⅴ. 결론과 시사점

이 연구는 20~30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여가통행 목적지의 선택과 선호 간의 공간적 패턴을 비교하고, 여가통행 목적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표 5〉 여가유형과 여가통행 목적지 선호에 대한 속성별 상대적 중요도와 효용

속성	하위수준	상대적 중요도	부분효용
여가유형	쇼핑·복합형	45.979	-1.793
	관람·행락·취미활동형		.874
	자연·휴양형		.772
	사교형		.148
여가통행 목적지 입지	거주지 주변	54.021	-1.502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역거점		1.256
	주요 중심지		1.051
	외곽지역		-.805

Constant: 8.50, Pearson's R: 0.816(.000), Kendall's tau: 0.533(.002)



요인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30대 1인 가구의 여가통행 목적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경제 변수 가운데 주택 점유형태가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20~30대 1인 가구의 주택점유형태가 자가가 아닌 경우에 거주하는 해당동을 여가통행 목적지로 선택할 확률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를 직접적으로 해석하면, 20~30대 1인 가구는 주거안정의 달성과 함께 여가활동의 통행목적지를 상대적으로 원거리로 선택한다는 것이며, 가구의 주거비용 지출감소에 의해 여가통행거리가 달라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가구의 주거비용은 가구의 가처분소득과 연관되어 있고, 특히, 타 가구유형에 비해 여가나 취미활동 등에 대한 소비가 많은 20~30대 1인 가구는 가처분소득이 여가활동에 대한 지출비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박지혜 외, 2015). 하지만 주택의 점유형태와 입지의 관계를 주거비용과 교통비용 간의 상쇄관계로 이해할 경우(Yi and Lee, 2014), 1인 가구는 입지적 장점이 많은 도심과 부도심, 역세권 지역의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향을 보이며(변미리 외, 2008),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1인 가구의 소득수준, 소형주택의 공급 현황, 그리고 주택 점유형태와 입지 선택 영향요인 등에 따른 결과이다. 이러한 1인 가구의 주거입지 선택 경향을 고려하면, 20~30대 1인 가구는 여가활동의 주요 목적지가 밀집해있는 도시의 중심지와 거점지역에 임차로 거주하는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여가매력성이 높은 곳을 여가통행 목적지로 선택하려는 경향과 맥락을 같이 한다.

둘째, 여가유형별 여가통행 목적지 공간선택 패턴을 파악한 결과, 쇼핑·복합형 여가활동은 가구가 거주하는 해당동을 여가통행 목적지로 선택하였고, 관람·행락·취미활동형 여가통행의 목적지는 지역거점 및 서울시내 기타지역을 선택하였다. 사교형 여가통행 목적지의 경우는 주로 원거리 목적지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자연·관광휴양형 여가통행 목적지는 서울외곽 지역을 주로 목적지로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가활동 유형별로 여가통행 목적에 따라 여가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고, 타 가구유형에 비해 활동의 제약이 적은 1인 가구는 여가통행 목적에 따라 다양한 여가통행 목적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20~30대 1인 가구가 선호하는 여가활동 유형과 여가통행 목적지를 분석한 결과, 여가유형은 관람·행락·취미활동형과 자연·휴양형 여가활동을 선호하였으며, 여가활동을 위한 여가통행 목적지 입지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역거점과 서울 주요 중심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30대 1인 가구는 지역거점과 주요 중심지에서 관람·행락·취미활동과 자연·휴양형 여가활동을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선택과 선호라는 관점에서 취미·행락·관람형 여가활동을 위한 여가통행 목적지의 선택과 선호를 비교하였을 때, 선택된 목적지와 선호하는 목적지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1인 가구의 경우, 본인의 선호가 선택으로 나타날 확률이 가장 높은 집단이고 선호가 선택으로 반영될 수 있는 여가환경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자연·휴양형 여가활동은 공간적 선택과 선호가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실제 선택된 목적지는 주로 서울외곽이었으나 선호는 지역거점과 서울의 주요 중심지로 나타났다. 이는 1인 가구의 선호에 대한 선택확률특성을 고려했을 때, 자연·휴

양형 여가환경이 개인이나 집단의 공간적 선호를 선택으로 반영할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선호가 선택으로 반영될 여가환경이 부족하거나 충족되지 않을 경우, 공간의 선호와 선택은 공간 불일치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20~30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여가·관광분야의 사업 및 정책적 초점은 도시 중심지와 지역거점에서의 관람·행락·취미활동에 맞추어질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자연·휴양형 여가활동의 경우 선호와 선택의 공간불일치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시 중심지와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자연·휴양형 여가활동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이용자 친화형 도시 녹지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 즉, 주로 도시 외곽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자연·휴양형 여가활동을 도시 내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내부에 대체재를 마련할 경우 자연·휴양형 여가활동에서 나타나는 선호와 선택간의 공간불일치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

이 연구는 20~30대 1인 가구의 여가통행에 대한 목적지 선택과 선호와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는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20~30대 1인 가구의 여가통행에 행태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좀 더 폭 넓고 광범위한 자료수집이 필요하나 여가통행과 관련된 유효 표본을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다. 또한 여가활동에 대한 공간적 선택과 선호에 관한 행태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가유형별 목적지선택과 선호에 대한 행위과정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향후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자료의 구득과 기법의 기술적 적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여가통행 행태특성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김서연·류기상, 2014, "1인 전용 레스토랑에 대한 고객의 방문의도 연구: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중심으로", 「외식경영학회」, 17(3): 53~75.

김용이, 2009, "세분시장에 따른 관광목적지 브랜드 자산과 선호도·충성도의 관계 연구",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 박사학위논문,

김옥연·문영기, 2009, "1인 가구 주거실태 분석: 서울시 1인 가구를 중심으로", 「한국주거환경학회지」, 7(2): 37~53.

민웅기, 2002, "한국사회의 여가생활에 대한 사회구조적 고찰", 「사회연구」, 4: 43~65.

문화체육관광부, 2012, 「2012 국민여가활동조사」.

박지남·천혜경, 2012, "청년세대의 '나 홀로 여가' 문화", 「여가학연구」, 10(2): 87~105.

박지혜·이순학·한승희, 2015, 「1인 가구의 문화소비지출 행태분석」, 산업연구원.

백혜진·이충기·김진옥, 2015, "나홀로 국내 여행객의 여행제약, 협상, 태도 및 행동의도 간 구조관계 연구", 「관광레저연구」, 27(1): 115~134.

변미리·신상영·조권중, 2008, 「서울의 1인 가구 증가와 도시정책 수요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동환·장윤정·이승일, 2011, "보상메커니즘을 고려한 도시공간구조측면에서의 평일통근통행과 주말여가통행 상호관계분석", 「국토계획」, 46(7): 89~101.

성영애, 2013, "군집분석을 통해 살펴본 1인 가구의 연령대별 소비지출패턴", 「소비자학연구」, 24(3): 157~181.

안효원·이종호·오승훈, 2013, "수도권 1인 가구의 통행발생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토목학회논문집」, 33(6): 2503~2508.

유창주·남광우, 2014, "1인 가구의 시공간적 분포 분석: 부산시를 사례로", 「한국지리정보학회지」, 17(2): 59~71.

윤소영, 2002, "독신의 시간사용과 여가활용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209~217.

이성림·김기옥, 2009, "우리나라 독신가구의 여가활동 소

비지출패턴에 관한 연구", 「소비문화연구」, 12(3): 105~123.

장윤정·이승일, 2010, "거주지의 여가환경이 여가통행거리에 미치는 영향분석", 「국토계획」, 45(6): 85~100.

장윤정, 2013, "가구유형별 여가통행패턴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가구의 생애주기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 박사학위논문.

_____, 2014, "여가관광통행의 연구동향과 쟁점", 「관광연구저널」, 28(9): 65~84.

전상민, 2013, "단독가구의 소비지출패턴 유형 및 결정요인 분석", 「소비자문제연구」, 44(3): 21~43.

정선태·박정하, 2006, "관광목적지 결정요인의 인구통계학적 차이분석에 관한 연구", 「호텔관광연구」, 8(4): 236~251.

최경은·윤주, 2013, 「1인 가구 여가활동 분석 및 대응정책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최승균·박대섭·홍완수, 2012, "싱글족의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외식행동 연구: 서울 및 수도권지역 25세 이상 54세 이하 성인을 대상으로", 「외식경영학회」, 15(1): 131~153.

통계청, 2010, 인구통계총조사.

_____, 2011,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 결과 (http://kostat.go.kr.).

_____, 2012,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나타난 1인 가구 현황 및 특성, 보도자료.

KB 이슈리포터, 2013, 솔로이코노미 성장과 금융산업,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

Bhat, C. R., Govindarajan, A., and Pulugurta, V., 1998, "Disaggregate Attraction-End Choice Modeling",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1645: 60~68.

Bhat, C. R., 2001, "Destination Choice Modeling for Home-Based Recreational Trips Analysis and Implication for Land use, Transportation, and Air Quality Planning",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1777: 48.

Bhat, C. R. and Gossen, R., 2004, "A Mixed Multinomial Logit Model Analysis of Weekend Recreational Episode Type Choice",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B*, 38: 767~787.

Ceron, J. P. and Dubois, G., 2005, "More Mobility Means More Impact on Climate Change: Prospects for Household Leisure Mobility in Fance", *BELGEO*, 1(2): 103~119.

Drolet, A., Luce, M. F. and Simonson, I., 2009, "When Does Choice Reveal Preference? Moderators of Heuristic versus Goal Based Choic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6(1): 137~147.

Euromonitor International, 2012, *Special Report: Rise in Single-Person Households Globally Impacts Consumer Spending Patterns*.

Greene, W. H., 2007, *NLOGIT 4 Student Mannual*.

Gilliland, D. I. and Donthu, N. 2002, The Single Consumer. *Journal of Advertising Research*, 42(6): 77~84.

Hackney, J., 2004, *Discrete Choice Models for Long-Distance Travel Based on the DATELINE Survey*, Paper Presented at the 4th Swiss Transport Research Conference, Monte Verita/Ascona.

Hall, R., Odgen, P. and Hill, C., 1997, "The Pattern and Structure of One-Person Households in England Wales and French", *International Journal of Population Geography*, 3(2), 161~181.

Jones, S. R., 1981, *Accessibility Measures: A Literature Review*. No. TRRL LR 967 Monograph.

Jones, G. W., Yanxia, Z. and Zhi, P. C. P., 2012, "Understanding High Levels of Singlehood in Singapore",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43(5): 731~750.

Kaufman, J., 1994, "One Person Households in Europe", *Population*, 49(4~5): 935~938.

Koppelman, F. S. and Hauser. J. R., 1978, "Destination Choice Behavior for Non-Grocery Shopping Trips",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673: 157~165.

Koppelman, F. S. and Bhat, C., 2006, *A Self Instructing Course in Mode Choice Modeling*,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

Kramarow, E., 1995, "The elderly who love alone in the United States: historical perspectives on household change", *Demography*, 32(3): 335~352.

Koesoebjono, S., 1984, *Trends of One-person Households in Netherlands, 1960~1981: A Demographic Analysis, Population and Family in the Low Countries*, IV, Voorburg, Netherlands. 101~133.

LaMondia, J. T., Snell, C. R. and Bhat, C., 2010, "Traveler Behavior and Values Analysis in the Context of Vacation Destination and Travel Mode Choices: European Union Case Study",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2156: 140~149.

Lanzendorf, M., 2002, "Mobility Styles and Travel Behavior: Application of a Lifestyle Approach to Leisure Travel",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1807: 163~173.

Louviere, J. J. and Timmermans, H. J., 1990, "Using Hierarchical Information Integration to Model Consumer Responses to Possible Planning Actions: Recreation Destination Choice Illustration", *Environment and Planning A*, 22(3): 291~308.

Miller, E. and O'Kelly, M., 1983, "Estimating Shopping Destination Choice Models from Travel Diary Data", *Professional Geographer*, 35(4): 440~449.

Morey, E., Shaw, W. D., and R. Rowe., 1991, "A Discrete-Choice Model of Recreational Participation, Site Choice, and Activity Valuation When Complete Trip Data Are Not Available", *Journal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Management*, 20: 181~201.

Nostrand, C. V., 2011, "A Discrete-Continuous Modeling Framework for Long-Distance, Leisure Travel Demand Analysis", The degree of Master of Science in Civil Engineering Department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College of Engineering, University of South Florida, U.S.

Ohnmacht, T., Gotz, K. and Schad H., 2009, "Leisure Mobility Styles in Swiss Conurbations: Construction and Empirical Analysis", *Transportation*, 36: 243~265.

Pozsgay, M. A. and Bhat, C. R. 2001, "Destination Choice Modeling for Home-Based Recreational Trips Analysis and Implication for Land Use, Transportation, and Air Quality Planning",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1777: 47~54.

Simma, A., Schlich, R. and Axhausen, K., 2002, *Destination Choice Modelling of Leisure Trips: The Case of Switzerland*, Arbeitsberichte Verkehrs-und Raumplanung, 99.

Schlich, R., Schonfelder, S., Hanson, S. and Axhausen, K. W., 2004, "Structure of Leisure Travel: Temporal and Spatial Variability", *Transport Reviews*, 24(2): 219~237.

Statistics Finland, 2011, http://www.stat.fi/index_en.html

Timmermans, H. J. P., 1996, "A Stated Choice Model of Sequential Mode and Destination Choice Behavior for Shopping Trips", *Environment and Planning*, 28A: 173~184.

Train, K., 1998, "Recreation Demand Models with Taste Differences Over People", *Land Economics*, 74(2): 230~239.

Wang, H. and Abbott, D. A. 2013, *Waiting for Mr. Right: The Meaning of Being a Single Educated Chinese Female over 30 in Beijing and Guangzhou*, In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40: 222~229.

Wall, R., 1989, "Leaving homes and living alone: an historical perspective", *Population Studies*, 43(3): 369~389.

Witte, J. and Lahmann, H., 1988, "Formation and Dissolution of One-person Households in the United States and West Germany",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73(1): 31~42.

Yai, T., Yamada, H., and Okamoto. N., 1995, "Nationwide Recreational Travel Survey in Japan: Outline and Modeling Applicability",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1493: 29~38.

Yamamoto, T. and Kitamura, R., 1999, "An analysis of

Time Allocation to In-home and Out-of-home Discretionary Activities across Working Days and Non-working days", *Transportation*, 26(2): 211~230.

Yi, C. and Lee, S. 2014,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Residential Location Choice in the Rapidly Changing Korean Housing Market", *Cities*, 39: 156~163.

Yoshida, A. 2011, "No Chance for Romance: Corporate Culture, Gendered Work, and Increased Singlehood in Japan", *Contemporary Japan*, 23(2): 213~234.

원 고 접 수 일 : 2015년 8월 12일
1 차 심 사 완 료 일 : 2015년 10월 21일
2 차 심 사 완 료 일 : 2015년 12월 8일
최 종 원 고 채 택 일 : 2016년 6월 7일

<부록> 여가복합도·여가접근도·여가매력성 도출값

여가복합도	여가접근도	여가매력성
0.983076959	6.26602277	22.97542
0.983076959	6.26602277	25.06409
0.776634721	136.805578	456.0186
0.737882257	6.65019627	22.16732
0.882914492	6.60440327	24.21615
0.818380337	6.62540227	24.29314
0.776634721	136.805578	456.0186
1.046230824	6.89716187	22.99054
0.80480666	6.63779927	24.3386
0.80480666	6.63779927	28.7638
0.847907189	6.60642727	22.02142
0.799336012	6.66132827	31.0862
0.847907189	6.60642727	26.42571
0.847907189	6.60642727	30.82999
0.846459346	6.60566827	30.82645
0.894893698	6.23212077	27.00586
0.949286286	6.23996377	29.11983
0.949286286	6.23996377	24.95986
0.818109186	6.63122127	24.31448
0.948369234	6.23237377	24.9295
1.000077051	7.26142742	33.88666
1.000077051	7.26142742	33.88666
0.948369234	6.23237377	22.85204
0.948369234	6.23237377	22.85204
0.948369234	6.23237377	24.9295
1.000077051	7.26142742	33.88666
0.882914492	6.60440327	24.21615
0.948369234	6.23237377	29.08441
0.979001443	6.22554277	29.05253
0.979001443	6.22554277	26.97735
0.882914492	6.60440327	22.01468
0.961358224	6.23540977	22.86317
1.011162582	6.71338023	17.90235
0.642162303	6.39852873	19.19559
1.011162582	6.71338023	17.90235
0.642162303	6.39852873	21.32843
0.777172522	6.67323227	17.79529
1.118927196	6.50765363	19.52296
0.845059704	6.52258063	19.56774
0.845059704	6.52258063	21.74194
0.845059704	6.52258063	21.74194
0.777172522	6.67323227	20.0197
0.777172522	6.67323227	20.0197
0.777172522	6.67323227	20.0197
0.777172522	6.67323227	15.57088
0.777172522	6.67323227	20.0197
1.118927196	6.50765363	19.52296
0.845059704	6.52258063	15.21935
0.777172522	6.67323227	15.57088
1.118927196	6.50765363	19.52296
1.118927196	6.50765363	21.69218
0.777172522	6.67323227	20.0197
0.845059704	6.52258063	15.21935
0.777172522	6.67323227	20.0197
1.118927196	6.50765363	15.18453
1.118927196	6.50765363	21.69218
1.118927196	6.50765363	21.69218
1.060899729	6.68335227	17.82227
1.118927196	6.50765363	21.69218
0.777172522	6.67323227	15.57088
0.965823622	6.27506473	14.64182
0.965823622	6.27506473	18.82519
0.875890554	6.62894427	24.33118
0.7023485	8.78429031	32.20906
1.006090789	8.55919935	25.6776
0.64576967	9.15927391	33.584
0.993029494	8.39412671	25.18238
0.986100838	8.47761671	31.08459
0.76092813	8.55666935	37.0789
0.98052729	8.66791031	31.78234
0.740560767	8.52124935	31.24458
0.98052729	8.66791031	26.00373
0.7023485	8.78429031	32.20906
0.942927853	8.67803031	31.81944
0.919992308	8.60726935	37.29817
0.868210963	8.78429031	38.06526
0.983235696	8.34605671	36.16625
0.868210963	8.78429031	38.06526
0.740560767	8.52124935	36.92541
0.8437452	8.90384961	38.58335
0.986100838	8.47761671	31.08459
0.942927853	8.67803031	26.03409
0.7023485	8.78429031	32.20906
0.98052729	8.66791031	31.78234
1.006090789	8.55919935	39.94293
1.006090789	8.55919935	37.08986
0.7023485	8.78429031	38.06526
0.98052729	8.66791031	43.33955
0.942073232	7.90166921	31.60668
0.986100838	8.47761671	31.08459
0.7023485	8.78429031	38.06526
0.993029494	8.39412671	30.77846
0.740560767	8.52124935	28.40416
0.720128738	8.57184935	31.43011
0.740560767	8.52124935	31.24458
0.986100838	8.47761671	36.73634
0.983235696	8.34605671	30.60221
0.913339791	8.64261031	34.57044
0.983235696	8.34605671	30.60221
0.983235696	8.34605671	30.60221
0.983235696	8.34605671	30.60221
0.983235696	8.34605671	30.60221
0.7023485	8.78429031	35.13716
0.942073232	7.90166921	28.97279
0.986100838	8.47761671	31.08459
0.64576967	9.15927391	33.584
1.006090789	8.55919935	28.53066
0.986100838	8.47761671	31.08459
0.983235696	8.34605671	30.60221
0.942927853	8.67803031	37.6048
0.7023485	8.78429031	35.13716
0.64576967	9.15927391	33.584
0.983235696	8.34605671	36.16625
0.942927853	8.67803031	34.71212
0.767618016	6.66082227	24.42302
0.940478555	6.24881877	22.91234
1.06815084	7.23638042	21.70914
0.799336012	6.66132827	22.20443
0.812384766	6.62894427	24.30613
0.875890554	6.63577527	24.33118
0.822231943	6.61705327	26.46821
0.948369234	6.23237377	22.85204
0.983076959	6.26602277	22.97542
0.818380337	6.62540227	28.71008
0.822231943	6.61705327	26.46821
0.997732686	6.62919727	24.30706
0.799336012	6.66132827	22.20443